



Hana FX Weekly Letter

달러/원·엔·유로환율·금리·주식

외환파생상품영업부

2025. 9. 1

본 자료의 내용은 집필자 개인의견이며, 하나은행의 공식견해와는 무관합니다. 또한 본 자료는 현 경제상황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기초 자료로 투자권유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며, 자료는 신뢰할 수 있는 정보에 근거해서 작성된 것이나 정확성 등을 보증한 것은 아닙니다. 본 자료는 당행의 저작물이며 사전승인 없이 본 자료의 전체 또는 일부를 인용하거나 복제하여 사용하는 것을 금합니다.



주간 달러/원 동향(8/25~8/29)및 전망



주간 달러/원 동향

- 주초, 파월 의장 잭슨홀 연설이 시장 예상보다 도비시했다는 평가에 달러 약세 나타난 영향으로 환율은 큰 폭 하락 출발. 이어 프랑스 정국 불안 속 유로화 약세에 달러 반등한 가운데 수급상 매수세 유입되면서 1390원대로 상승
- 중반, 주요 이벤트 부재 속 금통위 앞두고 관망심리 확산됨에 따라 소폭 상승
- 후반, 금통위 금리동결에 대한 매파적 인식과 수출업체 네고물량 출회 영향 등에 하락 전환. 이어 주 후반, 미 PCE물가 경계심리와 국내증시 외국인 순매도 속 반등 후 1390원선 마감

주간시가

1,385.0

주간고가

1,397.0

주간저가

1,384.2

주간종가

1,390.1

주간등락

+5.1

달러/원 전망

- 달러/원 환율은 연준 9월 금리인하 기대에도 미 고용지표 경계감과 수급 영향에 상승 압력 받을 전망
- 미 7월 근원PCE 2.9% 등 연준 목표 상회하는 물가 수준에도 예상 부합함에 따라 시장 내 9월 금리인하 기대는 유지되는 모습. 다만, 연내 1회 인하에 그칠 가능성 등 불확실성 여전하다는 인식 속에 달러 약세 폭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임
- 또한, 연준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칠 미 고용보고서 발표가 다가오는데 따른 경계심리와 수입업체 결제수요 등 수급상 매수세 등을 고려하면 상방 압력 나타날 것으로 예상

예상거래범위

1,380원 ~ 1,400원



유로·엔화 동향 (8/25~8/29)



유로화 동향

- 주초, 프랑스 재정 긴축 갈등 속 바이루 총리 의회 신임 투표 요청 소식에 정부 붕괴 가능성 제기되자 유로화는 큰 폭 약세 출발. 이어 트럼프의 연준 압박이 금리인하를 가속화할 수 있다는 전망에 달러 대비 강세 전환
- 중반, 프랑스 정국 불안 지속되며 약세 압력 받았으나 연준 독립성 이슈에 따른 9월 인하 기대감 반영한 달러 약세에 약보합
- 후반, 금융위기 발생 가능성은 없다는 프랑스 재무장관의 발언에 안도감 유입된 영향으로 반등. 이어 주 후반, 독일 CPI가 2.2%로 예상을 상회하자 ECB 금리인하 가능성이 다소 낮아졌다는 인식 속 강세 보이며 1.16달러대 마감

주간시가	주간고가	주간저가	주간종가	주간등락
1.1717	1.1729	1.1575	1.1686	-0.0031

엔화 동향

- 주초, 파월 의장의 잭슨홀 발언에 대한 재평가 속 신중한 정책 기조 부각된 가운데 달러 반등 및 미 국채금리 상승세 나타나면서 엔화는 약세 출발. 이어 트럼프의 쿡 연준 이사 해임 소식에 금리인하 압박 강화될 것이란 우려가 확산되자 달러 대비 강세 전환
- 중반, 일본 기업들의 월말 결제수요 등 수급상 달러 매수 우위 영향에 재차 약세
- 후반, 경제 및 물가 전망 실현 시 정책 조정을 이어갈 것이라는 BOJ 정책 위원 발언에 금리인상 기대감 유입되며 강세 전환. 이어 주 후반, 예상보다 부진한 일본 7월 생산 및 소비 지표에 약세 압력 받으며 147엔대 마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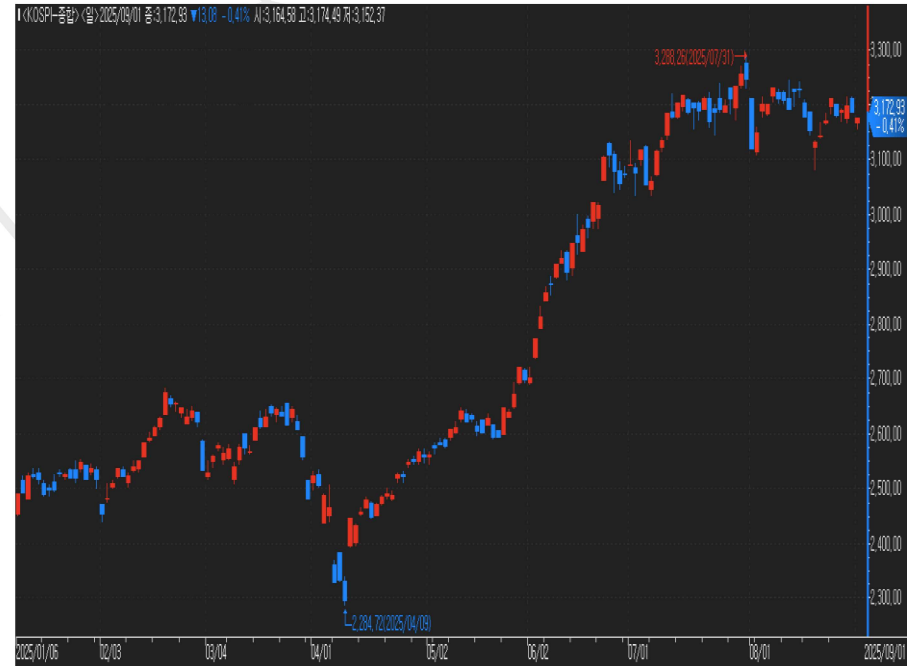
주간시가	주간고가	주간저가	주간종가	주간등락
146.9	148.2	146.8	147.0	+0.1

국고채 금리 및 주간 증시 동향 (8/25~8/29)



주간 국고채 금리 동향

- 초반, 잭슨홀 심포지엄에서 연준 의장의 금리인하 가능성 시사에 국고채 시장 강세 요인으로 작용하며 금리 하락 출발.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리사 쿡 연준 이사를 해임하면서 미 국채 장기 구간에 약세 압력이 가해지면서 이에 대한 영향이 국고채 금리 상승 견인하였지만, 이후 외국인 국채 선물 저가 매수 움직임 등으로 혼조 흐름 시현
- 중반 들어, 한은 금통위에 대한 관망세 속에 내년 예산안 발표 등에 대한 경계감 반영 속에 소폭 하락 추세 나타낸 양상
- 후반 들어, 8월 금통위 이후, 매파적으로 평가된 금통위 금리 동결 결과에 실망감이 반영되며 단기 구간 중심으로 금리 상승 전환 시현 후, 주 후반, 내년도 국고채 발행 규모가 시장 예상에 부합한 수준으로 나타나면서 시장 불확실성이 해소되며 장기 구간 중심 금리 하락에 영향을 미친 반면, 단기 구간에서는 전일의 금통위 영향 지속되며 상승 압력 유지되는 가운데 마감



주간 증시 동향

- 초반, 잭슨홀 심포지엄에서의 파월 의장 발언에 대해 시장이 비둘기적으로 인식한 측면에 따른 투자심리 개선 속 코스피 상승 출발. 이어 한-미 정상회담이 성공적이었다는 호재에도 잭슨홀 이후 금리인하 기대감이 다소 사그라들며 코스피 하락 전환
- 중반 들어, 외국인 매도세 강화에 따라 지지부진 국면 속 조선업종 '마사가' 기대 등이 반영되며 강보합 흐름
- 후반 들어, 뉴욕장 마감 후 엔비디아 실적발표가 시장 전망을 살짝 웃돌았지만, 차익실현 매물이 쏟아지며 시간외 거래 하락 영향 반영 후, 상법 개정 기대 등으로 상승 반전한 이후, 주 후반, 미국 물가 지표 발표 등에 대한 불확실성에 따른 회피성 매도 움직임 속 외국인 투자자 중심 매도 물량 강화 등으로 소폭 하락하며 마감